

馬融의 古文經學과 그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汚辱

李康範*, 金賢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馬融의 古文經學과 注釋 작업
3. 馬融의 出仕와 정치적 선택
 - 3.1 初心의 변화
 - 3.2 馬融의 예지력
 - 3.3 外戚 梁氏의 발호와 馬融의 아부
 - 3.4 清流인사와의 불화
 - 3.5 馬融의 사망과 范曄의 논평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西漢과 東漢의 중심을 뚫고 있는 학술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今古文經學이 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른바 今文十四博士가 學官에 서게 된 뒤로 漢武帝의 ‘百家罷黜, 獨尊儒術’을 거치면서 학문과 사상은 今文學 일변도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학술사상에 있어 한 분야의 독점이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東漢에 들어서서 학계에는 서서히 民間에서 환영받기 시작한 古文學의 신선함이 유입되면서 점차 세력을 형성해 나가더니 章帝 시기에는 今古文이 나란히 學官에 서는 변화를 이루었고, 東漢末에 이르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국지역학과 석사.

자 古文學이 완전히 학계를 주도 하게 되었다. 그 후로 今文經은 古文經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명맥유지를 걱정할 정도로 쇠락하다가 清代에 반짝 부흥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는 그들의 저작은 輯佚學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東漢末 今古文의 정치와 문화 권력 교체 과정에서 이른바 古文經學의 大家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 賈逵·馬融·鄭玄 등이 그들이다. 물론 훗날 정리된 經學史로 보자면 今古文의 집대성자로 鄭玄이 워낙 우뚝하기 때문에 다른 古文經學家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¹⁾ 이는 鄭玄의 著作과 注釋이 가지는 무게와 經學的 공헌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古文經學家의 저술이 거의 빠짐없이 산실되어 버린 것도 주요 이유로 봐야할 것이다.

본고는 이들 희미해져버린 古文經學家들 중에서 馬融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체도 없이 빈껍데기만 남았지만 그의 저술 목록이 주는 무게감이 매우 이렇기도 하거니와, 훗날 經學의 鼻祖가 된 鄭玄도 그의 제자로 들어온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스승에게 감히 쉽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학문적 권력을 누렸으며, 이후 그가 보여주는 개성이나 이력 또한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의 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학자의 품모나 기개와는 전혀 다른 俗人の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간적인 모습이 주는 묘한 친근함과 호기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소설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훗날 자신을 압도할 걸출한 제자인 鄭玄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²⁾ 그의 모습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감출 수 없는 속됨과 허위의식에 가득한 속물 지식인과 겹쳐진다.

-
- 1) 중국의 馬融 연구는 각종 經學史에서 짧게나마 빠짐없이 언급되는 외에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몇 편의 단편 논문을 검색하였는데 馬融의 經學과 學行 등에서 한 주제를 깊이 천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 역시 10편 내외를 헤아린다. 그리고 馬融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馬融을 주제로 한 논문은 물론 키워드에 馬融이 있는 논문을 한 편도 검색하지 못하였다.
 - 2) 馬融의 鄭玄 살해 시도 얘기는 주로 《世說新語》 등 소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일화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야말로 소설적인 허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도 호사가들이 꾸며낸 얘기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당시 선비 사회에서 대단한 미움을 받고 있었던 馬融에게 이런 일화 하나쯤 있는 것은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가 古文經學家로써 보여준 헌신과 공헌을 다시 조명해 보고, 당시 선비 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굴한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통해 그의 인생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오늘날 지식인의 모습과 더불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馬融의 古文經學과 注釋 작업

馬融(79-166)의 字는 季長이며, 右扶風茂陵 사람이다. 東漢章帝 建初四年(79)에 明帝의 馬皇后의 從侄이자, 將作大匠인 馬嚴의 아들로 태어났다. 外戚이자 호족인 집안 환경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히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아버지 馬嚴은 諸子百家와 특히 《左氏春秋》에 밝았으며, 馬融은 아홉 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워 착실한 기초를 닦아 家學을 이어받았다. 馬嚴이 죽자 다시 禮儀와 五經, 그리고 百家之言에 통달한 關西의 名儒 擘恂에게 사사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마침내 經籍에 두루 능통하게 되었다. 馬融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기인 《後漢書》〈馬融傳〉을 보면 맨 앞에 수학적 경과가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당초 擘恂은 儒術을 가르치면서 南山에 은거하며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며, 關西 지방에서 명성이 높았다. 馬融이 그를 따라 공부하여 經籍에 두루 능통하게 되었다. 恂이 融의 재주를 높이 사서 자신의 딸을 주었다. (初, 京兆擘恂以儒術教授, 隱于南山, 不應徵聘, 名重關西, 融從其遊學, 博通經籍. 恂奇融才, 以女妻之.)³⁾

그가 학문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세 번 東觀⁴⁾에 들어간

3) 《後漢書》卷60上 〈馬融傳〉, 1953쪽 참고.

4) 東觀은 東漢 시기에 국가도서관 겸 학문의 중심 역할을 했던 기관이다. 원만한 碩學이 아니면 東觀에 入直할 수 없었으므로 들어가는 자체를 매우 영광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명문 집 자제였으므로 앞으로의 출세를 위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도 대단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和帝 永元 3年(AD91), 13살 때 馬融은 잘생긴 미소년으로 재주도 빼어나 經學에 밝았기 때문에 太子舍人이 되었다.⁵⁾ 이어서 27세가 되던 해에 당시 '博學'으로 유명한 여류 학자인 班昭에게 배웠다. 東漢의 大史學家 班彪의 딸이자, 班固의 여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는 班昭는 황제의 명으로 東觀에서 《漢書》를 續作한 바 있었는데,⁶⁾ 禁宮에 늘 출입하면서 鄧皇后와 황족들의 선생 노릇을 하였다. 당시 《漢書》가 처음 나오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馬融은 班昭와 같은 郡 출신이라 東觀에서 《漢書》를 배워 마침내 經史에 모두 博通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安帝 永初 4年(110), 鄧太后가 劉珍·劉陶駘와 五經博士 등과 함께 그를 불러 經書 등 문헌의 脫·誤字 수정을 맡겼다.⁷⁾ 校書郎中으로 拜受된 이 때 나이 32살이었다. 하지만 校書郎中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올린 상서 때문에 鄧太后에게 미움을 받아 10년이나 東觀에서 禁錮되었다가 鄧太后가 죽은 후에 安帝가 친정하면서 비로소 郎官으로 복직되었다. 세 번째는 桓帝 때 梁冀가 주살 당하고 난 뒤 "사면을 받아 돌아와서 다시 議郎을 배수 받아 다시 東觀에서 저술하게 되었다."⁸⁾ 사면을 받았을 때 이미 82세가 된 馬融은 머리를 깎인 채 朔方으로 쫓겨나 있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평생에 걸쳐 東觀에 3번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명망이 높은 것은 물론 학문 또한 빼어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종합해 보면 馬融의 저술과 注釋 작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上述한 대로 젊은 시기 궁중도서관에 해당되는 東觀의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던 시절을 꼽을 수 있는데 그의 經書 注釋의 상당수가 이때 완성되었다. 본인

히 유리한 환경이라 꽤 선호하는 자리였다. 오늘날 외교나 특목고에 입학시키려 애쓰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하다.

- 5) 惠棟, 《後漢書補注》에 인용된 謝承의 말이다. “融年十三, 明經, 召爲太子舍人.” 176쪽 참고. 張舜徽 主編, 《二十五史三編》(長沙: 岳麓書社, 2001.), 第四分冊에 수록.
- 6) 續作이란 오빠인 班固가 《漢書》를 지었으나 <八表>와 <天文志>의 遺稿가 흩어져 완성을 못하고 죽자 班昭가 이를 이어 第七表인 <百官公卿表>와 第六志인 <天文志>를 완성한 것을 말한다.
- 7) “鄧太后詔劉珍與校書郎劉陶駘·馬融和五經博士校定東觀五經·諸子傳記·百家藝術, 整齊脫誤, 是正文字.” 《後漢書》<文苑傳>, 2617쪽 참고.
- 8) “得赦還, 復拜議郎, 重在東觀著述”. 《後漢書》 卷60上<馬融傳>, 1972쪽.

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통해 비교적 득의에 차 있었던 이 시기의 학문적 성취에 대하여 《後漢書》〈馬融傳〉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馬融은 재주가 높고 학문이 박학하여 천하의 通儒가 되었다. 제자들을 길러 냈는데 늘 千명을 헤아렸다. 涿郡의 盧植과 北海의 鄭玄 모두 그의 제자였다. 琴을 잘 연주하였으며 笛을 잘 불었다. 삶에 통달한 자세로 천성 따라 내키는 대로 하였으며 儒生들의 소소한 예절에 역매이지 않았다. 거처하는 집이나 쓰는 물건과 옷 등이 사치스런 것들이 많았다. 高堂에 앉아 붉은 비단 장막을 드리우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강의하고 뒤에는 여성 연주자를 배치하였으며, 제자들은 서열에 따라 전수하였는데 방안까지 들어온 제자는 거의 없었다. 일찍이 《左氏春秋》에 훈을 달고자 하였으나 賈逵와 鄭衆의 注를 보고나서는 “賈君의 注는 정밀하나 博學하지 못하고, 鄭君은 博學하나 정밀하지 못하다. 각자 이미 정밀하거나 박학하니 내가 무엇을 더 더하겠는가!”라고 말하고는 《三傳異同說》만을 썼다. 《孝經》·《論語》·《詩》·《易》·《三禮》·《尚書》·《列女傳》·《老子》·《淮南子》·《離騷》 등에 주를 달았고, 그가 지은 賦·頌·碑·誄·書·記·表·奏·七言·琴歌·對策·遺令 등은 모두 21편이다.(融才高博洽, 爲世通儒, 教養諸生, 常有千數. 涿郡盧植, 北海鄭玄, 皆其徒也. 善鼓琴, 好吹笛, 達生任性, 不拘儒者之節. 居宇器服, 多存侈飾. 嘗坐高堂, 施絳紗帳, 前授生徒, 后列女樂, 弟子以次相傳, 鮮有入其室者. 嘗欲訓《左氏春秋》, 及見賈逵·鄭衆注, 乃曰:“賈君精而不博, 鄭君博而不精. 既精既博, 吾何加焉!”但著《三傳異同說》. 注《孝經》·《論語》·《詩》·《易》·《三禮》·《尚書》·《列女傳》·《老子》·《淮南子》·《離騷》, 所著賦·頌·碑·誄·書·記·表·奏·七言·琴歌·對策·遺令, 凡二十一篇.)⁹⁾

馬融의 폭넓은 注釋 작업은 羣經에 그치지 않았다. 위의 注釋과 작품 목록에서 보듯이 儒家經典뿐만 아니라 諸子書와 《離騷》 같은 문학 작품에도 주석을 달았으며, 스스로 창작한 각 장르별 문학작품 또한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예순이 지나 정치적인 야망이나 희망이 다 시들어 버린 채 다시 武都太守로 나갔던 老年을 후반기 학문 성취시기로 들 수 있다. 이때는 본인 표현대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經書 注釋에 필생의 뜻을 다하였는데, 經學 연구로 다시 돌아와서 注釋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經學 발전을 위하여

9) 《後漢書》 卷60上 〈馬融傳〉, 1972쪽 참고.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다. 清代 惠棟의 《後漢書補注》에는 馬融이 《周官傳叙》에서 말한 회고가 인용되어 있다.

내가 육십이 되어 武都郡守가 되었는데, 郡도 작고 일도 적어서 내 평생의 뜻을 저술할 수 있어서, 《易》·《尙書》·《詩》·《禮》 등의 傳을 다 지었다. 전에 생각해 두었지만 못한 것으로는 오직 《周官》 하나가 있었는데, 내 나이 예순 여섯이라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였지만 혼자 힘으로 이를 보충하여 《周官傳》이라 하였다. (吾六十爲武都守, 郡小少事, 乃述平生之志, 著《易》·《尙書》·《詩》·《禮》傳皆訖. 惟念前業未必者惟《周官》, 年六十有六, 目肆意倦自力補之, 謂之《周官傳》也.)¹⁰⁾

위 두 인용문에서 보듯이 馬融의 注釋 작업의 범위가 儒家經典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黃老 학설까지 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지만, 이는 당시 博學을 중시하던 학계의 풍조로 보아 그리 특이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흔히 古文經學의 본격적인 성과는 賈逵와 馬融의 손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鄭玄이 집대성을 이룬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들 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馬融과 鄭玄은 기본 성격 학술 성향 인품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後漢末 今古文經學의 총집대성자로 우뚝 선 그의 제자 鄭玄의 저술 목록에서도 經書가 아닌 緯書나 圖讖으로 분류되는 적지 않은 注釋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古文經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儒家 典籍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鄭玄에 비해 馬融의 注釋은 《老子》와 《淮南子》 등 老莊과 雜家 계열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으므로 鄭玄보다 훨씬 폭넓은 학문적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¹¹⁾ 博學을 중시하던 당시 학계의 풍조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이와 같은 성과를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학문적 폭과

10) 惠棟, 《後漢書補注》卷60上 <馬融傳>, 176쪽 참고. 張舜徽主編, 《二十五史三編》(長沙: 岳麓書社, 2001.), 第四分冊에 수록.

11) 《後漢書》卷35 <鄭玄列傳>에 따르면 鄭玄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우선 《周易》, 《尙書》, 《毛詩》, 《儀禮》, 《禮記》, 《論語》, 《孝經》, 《尙書大傳》, 《尙書中候》, 《乾象歷》에 주를 달았고, 이 외에도 따로 《天文七政論》, 《魯禮諦裕義》, 《六菴論》, 《毛詩譜》, 《駁許慎五經異義》, <荅臨孝存周禮難> 등 100萬餘字를 지었다. 馬融의 학문적 폭에 대해서는 王瑤도 《中古文學史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능력을 보이고 있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최소한 이들 목록만으로도 馬融의 천재성과 함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경계가 없는 넓은 학문 세계 등을 엿볼 수 있다.

아무튼 東漢末 古文經學의 대세가 거의 굳어져갈 무렵 《論語》 注釋 작업을 필두로 한 馬融의 群經 注釋은 古文의 입장을 다시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만 《春秋》에는 注釋을 달지 않았는데, 이는 위 인용문의 말대로 이미 ‘精’하고 ‘博’한 注釋이 賈逵와 鄭衆에 의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馬融의 古文學의 경향으로 보아 漢儒들의 陰陽·災異·讖緯說 남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증이 필요하고 논의의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그의 학문적 경향과 이력을 생각한다면 그리 엉뚱한 추론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經學史에 있어서 그의 공적은, 經學家 본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연구와 저술에도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講學, 즉 제자 키우는 데에 평생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朔方에 유배가 있을 때에도 講學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의 이러한 태도는 今古文 經學을 집대성한 鄭玄이라는 걸출한 제자를 길러내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의 제자 鄭玄이 끝까지 선비의 풍도를 지키는 ‘점잖고 중후한’ 학자의 길을 갔다면 스승인 馬融이 보여준 非儒家的 일탈 행위는 당시 宦官과 外戚의 전횡에 대항하는 淸流들이 보여주는 ‘엄숙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즉 위 인용문에서 본대로 ‘達生任性’이나 ‘不拘儒者之節’, 그리고 ‘女樂의 배치’ 등은 전통 사대부가 보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었는데, 혹자는 이를 곧 이어 크게 유행하게 될 淸談 풍조의 단초를 馬融이 이미 보인 것으로 읽기도 한다. 淸談의 시작은 馬融과 동 시대를 살았던 郭林宗을 꼽기도 하고, 曹操의 선비 살해를 계기로 보는 등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 馬融까지 淸談의 또 다른 시작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시 선비 사회와 정치의 관계를 바탕으로 폭넓은 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글에서 다시 상론하기로 한다.

만약 馬融이 순수 학자의 길을 갔다면 지금까지도 鄭玄의 스승이라는 명예

에 그치지 않고 위대한 古文經學家로써 우뚝 섰을 것이며, 그의 저술 또한 지금처럼 거의 망실되어버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선천적인 성격은 스스로를 정치 소용돌이 와중에 몰아넣고 결국 선비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개인적인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馬融이 휩쓸려 들어간 정치 소용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馬融의 出仕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馬融의 인생관의 변화는 몇 차례의 벼슬을 거치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를 둘러싼 東漢 사회에서도 뚜렷한 정치 현상이 된 外戚과 宦官의 전횡 및 선비 사회의 격양된 분위기를 우선 조금 돌이켜 보기로 한다.

3. 馬融의 出仕와 정치적 선택

3.1. 初心의 변화

上述했듯이 馬融은 外戚으로 권문세가 출신이고, 馬融의 부친인 馬嚴은 陳留太守·太中大夫·將作大匠 등을 지냈다. 馬氏는 당시 後漢의 소위 四姓(樊·郭·陰·馬) 小侯의 하나로써 章帝 시기에도 國舅 집안이 된 馬씨 가문은 여전히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章帝가 붕어하고 竇太后가 섭정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東漢의 外戚 전횡 시기가 시작된다. 竇氏들이 실권을 장악하자 馬氏 등 다른 외척을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배척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실권을 장악한 대장군 竇憲은 輔政大臣이 되어 더욱 거친 성격으로 정치적 보복을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馬氏 가문 역시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後漢書》〈馬嚴傳〉에서는 馬融의 부친 馬嚴이 “竇氏가 꺼려하는 사람이 된 뒤로 다시는 벼슬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황제가 붕어하고 竇太后가 섭정하게 되자 嚴은 물러나 스스로를 지키며 자손들을 가르쳤다.”(既爲竇氏所忌，遂不復在位。及帝崩，竇太后臨朝，嚴乃退居自守，訓教子孫。)12) 고

묘사하고 있다. 부친의 이런 어려움이 어린 馬融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특히 후일 그가 보여준 다양한 형태의 권력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은 순전히 유추의 영역에 속하지만 馬融의 학문적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얼마 안가 竇氏가 실각하고 난 뒤 실권은 다시 태후 鄧氏 일가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특히 태후의 오빠인 대장군 鄧騭이 군정 대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鄧騭은 馬融의 재주와 명성을 익히 들었으므로 자신의 손인으로 초빙하였다. 하지만 이 때만해도 馬融은 스스로 고결한 선비를 자처하고 있었고, 그가 좋아하는 바도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초빙에 응하지 않고 涼州의 武都와 漢陽 사이에서 객 노릇을 하였다.¹³⁾ 그가 ‘좋아하는 바가 아닌 것’이 대장군 鄧騭인지, 아니면 겨우 손인으로 초빙한 것에 대한 모욕감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겉으로는 권세가에 아부하지 않고 홀로 가는 선비의 기상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그 ‘고결함’이 오래가지 못했다. 馬融이 鄭玄과 같이 집에 틀어박혀서 오로지 연구와 저술에만 전념하고 도덕적으로도 고결한 품위를 유지하는 순수한 儒家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와 정반대되는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얼마 안가서 羌人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馬融은 그 난리 가운데 끼고 만다. 평소 安貧樂道 따위와는 거리가 먼 유복한 公子 생활을 누리온 馬融은 평생 처음 배고픔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말을 내뱉는다.

옛 사람의 말에 “왼손으로 천하의 지도를 들고, 오른손으로 자기 목을 찌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도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사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시골 선비들 비웃음이 겁나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내 몸을 죽게 한다면, 이는 아마 老莊이 말한 바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古人有言: 左手據天下之圖, 右手勿其喉, 愚夫不爲, 所以然者, 生貴于天下也, 今以曲欲咫尺之羞, 滅無訾之軀, 殆非老莊所謂也.)¹⁴⁾

12)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861-862쪽 참고.

13) “非其所好, 遂不應命, 客於涼州·武都·漢陽界間.” 《後漢書》 卷60上 <馬融傳>, 1953쪽 참고.

14) 위注와 같음.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馬融이 훗날 이익이나 영달을 취하여 선비들에게 경원당하는 처세의 근원에는 그의 약삭빠른 성격도 작용하였겠지만 젊은 시절의 이 배고픈 경험도 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뒤가 맞지 않은 자신의 심리 변화에 대한 변명으로 莊子の ‘生貴於天下’ 구절을 끌어다 약간 방패막이로 써먹은 혐의가 짙다. 하지만 이 시기 名敎에 물들어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언행을 보이려고 한 흔한 儒生들과고는 뚜렷한 사상 차이를 보여주는 태도임에는 틀림없다. 견디기 힘든 외부적인 충격이 그의 천성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출세지향적인 일반 선비들의 행동 양태를 따라가고 싶었던 잠재의식이 굶주림이라는 충격을 겪으면서 道家的인 표현 방식을 빌어 마음 한 구석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닐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라고 해도 그가 말한 ‘老莊이 말한 바’에는 상당히 다시 곰씹어 볼만한 의미가 있다. 儒家학술과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탄력적으로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老莊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 老莊에 이미 상당히 심취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변명도 지조 있는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뒤로는 꾀꾀했던 고개도 숙이고 자신의 신조를 저버리는 행동을 연이어 보여주는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당시 儒生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 젊은 날의 경험은 마음속의 움직임일 뿐, 곧바로 선비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조금은 허망하게 지조를 바꾼 뒤로는 마음의 부담을 던 탓인지 벼슬길에 올라 安帝 永初 4年(110), 上述한대로 두 번째로 東觀에 들어가 宮中藏書를 전교하는 校書郎中에 임명되었다. 스스로를 눌렀던 억압에서 벗어나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자 좀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주를 팔러 다니게 된다. 권력가들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들과 사귀는 재미가 붙어가자 東觀에서 도서를 끼고 사는 校書郎中이라는 벼슬이 마음에 찰 리가 없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재주를 팔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기로 한다. 安帝 元初 2年(115)에 <廣成頌>을 지어 황제에게 바친 것이다.

자신을 개미와 같은 小人으로 비유하고 생각도 짧지만 옛글에 기대어 사냥 얘기를 빌어 頌 한 편을 지어 올리겠노라는, 읽어주기 좀 민망한 말로 끝맺는 序文으로 시작하고 있다.¹⁵⁾ 文武의 道는 聖賢이 모두 중시한 바이므로 결코 폐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 글은 나름 회심의 역작이었겠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판관이었다. 諷諫의 형식을 빌려서 外戚에게 잘 보이고 더 높은 벼슬길도 트고자 했지만 황제의 인정은커녕 太后 鄧씨를 거스르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찍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鄧太后가 東觀 안에서 10년이 지나도록 이동이나 승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를 묶어 놓은 것이다. 학자로서 東觀에 있다는 자체가 영광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지만 馬融은 그 속에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불만을 자주 토로하곤 했었다. 조금 있다가 형의 아들이 죽게 되자 조카의 장례를 핑계로 스스로를 탄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 鄧太后는 이 소식을 듣고 왕명을 우습게 알아서 州郡으로 가서 벼슬하려 한다며 크게 노하여 馬融이 다시는 벼슬을 못하도록 禁錮 명령을 내렸다.¹⁶⁾ 속으로는 따로 갈 길을 마련하려고 그랬겠지만 당시 제도로는 허락을 얻지 않고 벼슬에서 함부로 물러나면 면직 시키게 되어있었으므로, 얼마 안 있어 鄧太后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벼슬길이 막힐 뻔 했다. 이렇게 和帝와 安帝 두 황제 시기에는¹⁷⁾ 시국이 어지러운 데다 鄧太后와의 관계도 있어서 그로서는 매우 불우한 시기였다.

하지만 鄧太后가 죽고 安帝가 親政을 하게 되자 다시 그를 불러 郎中에 배치하고 河間王 廢長史로 내보내 주었다. 이 때 황제가 東巡하여 泰山에 이르자 馬融은 <東巡頌>을 지어 바쳤는데, 황제는 그 문장을 높이치고 불러 郎中을 제수하였다. 北鄉侯가 즉위하게 되자 馬融은 稱病하는 글을 올리고 宮을 떠나 郡의 功曹가 되었다.¹⁸⁾

15) “小臣螻蟻，不勝區區。職在書籍，謹依舊文，重述蒐狩之義，作頌一篇。” <廣成頌> 全文은 《後漢書》<馬融傳>에 수록되어 있다.

16) “頌奏，忤鄧氏，滯於東觀，十年不得調。因兄子喪自劾歸。太后聞之怒，謂融羞薄詔除，欲仕州郡，遂令禁錮。” 《後漢書》 卷60上 <馬融傳>，1970쪽 참고.

17) 和帝와 安帝 사이에는 和帝의 막내인 廢帝 劉隆이 있지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영아인데다 재위기간도 8달에 불과 하므로 일반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는다.

3.2. 馬融의 예지력

전반적으로 馬融이 황제를 비롯한 종실과 외척들에게 잘 보여 더 높은 벼슬을 추구한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벼슬 과정에서 오로지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지낸 것은 물론 아니다. 馬融을 평가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외 관계를 꿰뚫어 보는 그의 판단력이다. 한마디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선견지명 혹은 예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順帝 陽嘉 2年(133)에 조정에서 敦厚하고 樸實한 선비를 천거하게 했는데 城門校尉인 岑起가 馬融을 천거하였다. 이 때 이미 55세의 나이가 된 馬融을 詔書로 불러 公車로 가게 하여 對策文을 내게 하고 議郎으로 제수하였다. 곧이어 大將軍인 梁商이 다시 從事中郎으로 천거하였으며, 다시 武都太守로 전보되었다. 이 때 西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征西將軍인 馬賢과 護羌校尉인 胡疇에게 정벌하도록 시켰으나 그들은 오래도록 출정하지 않았다. 馬融은 그들이 패할 것을 내다보고 상소문을 올려 스스로 나갈 것을 청하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여러 羌族들이 도처에서 번갈아 노략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 한데 합쳐지기 전에 급히 그 가운데로 깊이 파병하여 그 패거리를 쳐야 하옵니다. 하지만 馬賢 등은 곳곳에서 멈추어 있는데, 저 오랑캐들은 백리를 내다보고 천리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숨어서 회피한다고 해도 그 뒤가 허점을 보이면 반드시 三輔로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큰 화가 될 것입니다. 臣이 청컨대 馬賢이 쓸 수 없는 關東의 오천 병사에게 임시로 군령을 내려 힘을 다하여 통솔하고 분투하여 군대 맨 앞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사졸의 앞장을 서면 한 달 이내 반드시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臣은 어려서 글을 배웠지 군사는 잘 모릅니다만 감히 이 말을 올리오니 그릇된 말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을 받겠나이다. 옛날 毛遂는 비천한 사람이라 모두에게 비웃음을 샀지만 마침내 한 마디로 趙와 楚가 맹약을 맺게 했나이다. 臣은 馬賢 등이 오직 한 城만을 지키면서 서쪽을 친다고 하였는데 오랑캐가 동쪽에서 나타나 그 장군과 사졸들이 高克처럼 궤멸되어 도망가는 변란이 올까 두렵

18) <東巡頌>은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정치에 대한 견언을 내세우고 있지만 황제에 대한 아부로 가득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後漢書》<馬融傳>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類書(《藝文類聚》 卷39, 《初學記》 卷13, 《太平御覽》 卷537)에 초록되어 있다.

나이다.(今雜種諸羌轉相抄盜, 宜及其未並, 亟遣深入, 破其支黨, 而馬賢等處處留滯, 羌胡百裏望塵, 千裏聽聲, 今逃匿避回, 漏出其後, 則必侵寇三輔, 爲民大害. 臣願請賢所不可用關東兵五千, 裁假部隊之號, 盡力率厲, 埋根行首, 以先吏士, 三旬之中, 必克破之. 臣少習學藝, 不更武職, 猥陳此言, 必受誣罔之辜. 昔毛遂廝養, 爲衆所蚩, 終以一言, 克定從要. 臣懼賢等專守一城, 言攻於西而羌出於東, 且其將士必有高克潰叛之變.)¹⁹⁾

하지만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자 다시 상소를 올렸다.

혜성이 參星과 畢星에 나타났습니다. 參은 西方의 별자리이고, 畢은 변방의 戰變을 나타내는데, 이 별자리와 대응되는 지역이 바로 并州땅입니다. 西戎과 北狄이 장차 군대를 일으키려 할 듯하니 이 두 지역을 대비해야 하옵니다.(星孛參·畢, 參西方之宿, 畢爲邊兵, 至於分野, 并州是也. 西戎北狄, 殆將起乎! 宜備二方.)²⁰⁾

얼마 안 있어 隴西의 羌族이 반란을 일으키고 烏桓이 上郡을 침략하여 馬融이 말한 대로 되었다. 經傳에만 매달린 書生의 면모를 탈피하여 天文과 地理까지도 섭렵한 학문적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실제 통치에서도 매우 유능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상소문인 셈이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후에도 그의 상소문을 높이 평가하거나 어떠한 보상을 해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가 가진 학문과 경륜을 실제 정치나 국방에 잘 적용할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거기에는 馬融이 평소에 보인 언행 등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등 馬融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하겠지만 능력을 가진 인재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제 위에서 몇 번을 묘사한 馬融의 ‘경박한’ ‘신조를 저버리는’ ‘약삭빠른’ 행위의 실체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저술과 注釋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버린 지금 馬融을 이야기할 때 학문적인 업적보다는 이런 행위들이 훨씬 더 많이 회자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馬融 자신의 책임이다. 하지만 馬融이 지고 있는 ‘비호감’은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士大夫 사회의 분위기와도

19) 《後漢書》 卷60上 <馬融傳>, 1971쪽 참고.

20) 위 注와 같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東漢 말기의 시대상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3.3. 外戚 梁氏의 발호와 馬融의 아부

東漢 사회는 儒家정신과 名敎 사상에 투철한 士大夫들이 대거 등장하여 聖賢이 제시한 理想사회를 실현을 위해 가장 분투했던 한 시대로 평가된다. 하지만 理想과 現實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고 이들 理想主義者들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은 外戚과 宦官이었다.

흔히 西漢은 外戚 때문에 망했고 東漢은 宦官으로 인하여 멸망했다고 말한다.²¹⁾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東漢 시기 外戚의 전횡은 西漢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다. 4대 황제 和帝 때 竇太后와 竇憲이 정권을 잡은 뒤 桓帝가 ‘跋扈將軍’ 梁冀를 주살할 때까지 약 50년 이상을 外戚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順帝의 비호아래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宦官들이 마지막 황제 獻帝 때 何太后가 불러들인 董卓에게 몰살당할 때까지 60여 년을 정권을 틀어쥐고 있었으니 東漢이 宦官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결과론적인 표현이며 멸망의 책임은 外戚과 宦官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는 단지 그들의 得勢의 순서에 따른 결과일 따름이다.

馬融의 시대에는 宦官이 새로 강자로 등장하면서 外戚과 결탁하거나 아니면 生死를 건 피나는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선비 사회의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선비들의 눈에는 外戚은 君權을 약화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기는 宦官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 外戚의 권력 장악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章帝시기부터 竇씨와 梁씨가 皇后자리를 놓고 다투었는데, 順帝의 皇后는 다시 梁氏씨가 차지하게 되었다. 順帝는 19년간 재위에 있었는데, 이는 약 20년

21) 원문은 “西漢은 外戚으로 天子의 지위를 잃었으며, 東漢은 내시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졌다.”(西京自外戚失祚, 東都緣閹尹傾國) 《後漢書》〈宦者列傳〉(2537쪽)을 맺는 范曄의 평가인 ‘論曰’에 나온다.

동안 梁氏들이 권력을 독점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梁氏들은 거리낌 없이 沖帝와 質帝를 세웠지만 누구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중 沖帝는 順帝의 아들이긴 했지만 반년도 못되어 病死했는데 놀랍게도 나이가 3살이었다.²²⁾ 章帝의 증손인 質帝는 渤海王 劉鴻의 아들로써 매우 총명하였지만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大將軍 梁冀를 ‘跋扈將軍’이라고 불렀다가 梁冀에게 독살 당하였는데 이 때 나이가 불과 9살이었다. 결국 桓帝가 환관의 도움을 받아 梁冀를 주살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권력은 급속하게 환관에게 기울게 되었고, 따라서 사대부들의 時政 비판의 칼끝은 宦官을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뒤 얘기이고 梁冀가 주살 당하기 전까지 士大夫의 비판의 화살은 외척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시정의 각종 병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가혹한 비판을 퍼붓는 집단이 바로 훗날 黨人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인데,²³⁾ 그들은 스스로를 ‘清流’, 그러니까 깨끗한 선비의 지조를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外戚의 일원으로 선비 사회에서 通儒로 인정받았고 스스로 자부했던 馬融이지만 이 격양된 선비 사회에서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馬融의 만년의 벼슬길과 梁冀가 誅殺 당하기 직전의 행적으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3.4. 清流인사와의 불화

위에서 말한 대로 梁商이 表를 올려 추천해 준데 힘입어 大將軍 從事中郎이 되었다가 武都太守로 전보되었다. 다시 7년 후에 馬融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22) 하지만 중국황제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로 즉위한 기록은 따로 있다. 역시 東漢의 5대 황제인 廢帝로서 즉위할 때 태어난 지 한 달된 그야말로 강보에 싸인 얘기였다. 8달 만에 병사하고 만다.

23) 《後漢書》<黨錮列傳>에서 설명하는 黨人의 결성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桓帝가 蠡吾侯였을 때 수학한 周福과 같은 郡 출신 房植이 나란히 조정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점차 두 집안의 賓客들이 서로 비난하고 엮담하면서 마침내는 南北部가 있게 되었다. 黨人의 의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원문은 《後漢書》<黨錮列傳> 2185-2186쪽 참고.

大將軍 從事中郎으로 복직하였다. 이렇게 2번의 東觀 入直과 이런 저런 벼슬을 하느라 전전하는 중에 이미 서서히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 허물어버린 선비의 禁度는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집착이 되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바로 37세 젊은 날 호기롭게 지어 바쳤다가 오히려 결정적으로 鄧皇后의 눈 밖에 나서 10년이나 東觀에서 꼼짝 달짝 할 수 없었던 <廣成頌> 사건이었다. 당시의 馬融을 두고 《後漢書》에서는 “鄧氏에게 혼이 나고 난 뒤로는 다시는 감히 세력가들을 거스르지 않았다”²⁴⁾라는 다소 모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廣成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극적 자세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당한 불이익을 만회하려고 점차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外戚들의 발호가 정점으로 치달을 때 살았던 馬融은 마음속으로야 우여곡절을 겪었겠지만 이때부터 馬融의 달라진 인생관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최고 권력가인 ‘跋扈將軍’ 梁冀에게 영합하였으며, 중국엔 그를 위하여 <大將軍西邸頌>까지 짓기에 이른다.²⁵⁾ 말하자면 質帝를 독살한 시해범에게 적극 아부를 한 것인데, 그의 이런 행위는 사대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宦官과 外戚이 결탁하여 국정을 맘대로 농단하는 상황이 淸流를 자처하던 사대부 집단을 절망과 분노에 떨게 하던 시절이니 馬融도 자신을 향한 들끓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馬融은 멈추질 않았다. 심지어 桓帝 建和 元年(AD147)에 梁冀가 質帝를 독살하고 다시 蠡吾侯 劉志를 황제로 세우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이를 반대하던 李固를 무고하는 奏章을 급히 초안하게 된다. 요즘에야 이런 행위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잠깐 포탈을 장식하면 며칠 댓글이 빗발치다가 다른 변질자가 또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이슈를 다 선점해 버리지만, 당시엔 모든 인격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오점으로 두고두고 입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대학자는 기꺼이 황제 암살자를 위한 앞잡이가 되었다. 李固가 누

24) “懲於鄧氏，不敢復違忤執家。”《後漢書》卷60上 <馬融傳>，1972쪽 참고.

25) “遂爲梁冀草奏李固，又作大將軍<西第頌>，以此頗爲正直所羞。”

구인가? 사대부의 표상이며 강직한 불같은 선비의 상징이며 당시 淸流의 무리들이 천하제일로 흠모하던 儒林사회의 호랑이가 아닌가? 69세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고령의 나이에 벌인 이 일은 두고두고 당시 선비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빌미가 되었으며, 후세 역사에도 눈의 띄게 기술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에서 떨쳐낼 수 없는 꼬리표가 되었다. 다른 이들의 탄식은 뒤로 하고 정신을 팔아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눈먼 행각은 멈출 줄 몰랐다. 馬融은 철저하게 梁冀의 입장에 서서 李固를 “公으로 私를 꾸미고 바름에 의지하여 사악함을 행하였으며, 近戚을 이간시키고 스스로는 자신의 私黨을 살찌웠다(太尉李固因公假私, 依正行邪, 離間近戚, 自隆支黨)”²⁶⁾라고 모함하였다. 당하는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지만 ‘近戚을 이간’ 시킨다는 말은 外戚의 입장에 서있는 자신의 본심이 상당히 들어 있는 말로 보인다. 쓸 때는 기대감에 들떠 상당히 득의에 차 있을지 모르지만 志操도 正義感도 스스로 말살시킨 이 상소문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게 되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李固 사건 전에는 그래도 ‘通儒’로서의 명망에 준수한 용모에서 풍기는 개인적인 매력까지 작용하여 그런대로 선비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호감은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뒤로 그는 철저하게 망가졌다. ‘通儒’의 ‘변절’에 대하여 당시의 名儒 吳祐는 격노하였다. “李公(李固)의 죄는 그대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네. 李公이 곧 주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천하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李公之罪, 成於卿手, 李公即誅, 卿有何面目見天下之人乎?)²⁷⁾ 吳祐의 말은 한 사람의 분개가 아니라 馬融의 인격 타락에 대한 선비 사회의 한 목소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선비 사회에서의 교제는 이로써 거의 끊어졌고, 馬融의 형의 딸과 결혼하여 馬融의 조카사위가 된 유명한 《孟子》 주석가 趙岐조차도 “馬融을 비루하게 여기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²⁸⁾ 선비

26) <李固傳>에는 馬融이 썼다는 언급 없이 ‘此等’이라고만 쓰고 있으나, <吳祐傳>에 따르면 吳祐가 이 일로 梁冀와 크게 다투면서 그 옆에 있던 馬融에게 일갈한 말이다. 李賢 등의 注에서도 “據<吳祐傳>, 此章馬融之詞”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後漢書》 卷63 <李固傳>, 2084-2085쪽 참고.

27) 《後漢書》 卷64 <吳祐傳>, 2102쪽 참고.

28) “馬融外戚豪家, 岐常鄙之, 不與融相見.” 자세한 내용은 《後漢書》 卷64 <趙岐傳>, 2121

사회의 그에 대한 미움은 심지어 빼어난 제자인 鄭玄을 시기해서 제자들을 보내 죽이려고 했다는 그럴듯한 소설로까지 나아간다.²⁹⁾ 《世說新語》〈文學〉에 나오는 이 얘기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그 신빙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큰 저항 없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대박’을 노린 투자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였다. 여전히 南郡太守라는 ‘초라한’ 직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어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때 馬融의 상태를 《後漢書》〈馬融傳〉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세 차례 벼슬을 옮기고 桓帝 때에는 南郡太守가 되었다. 이에 앞서 馬融은 무슨 일로 大將軍 梁冀의 뜻을 거슬렀었다. 이후 冀가 담당 관리에게 馬融이 郡에 있을 때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알려서 면직당하고 머리를 깎은 뒤 朔方으로 쫓겨 갔다. 자살을 시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후에 사면을 받아 돌아와서 다시 議郎으로 제수되었다. 다시 東觀에서 저술에 힘쓰다 병으로 벼슬을 떠났다. (三遷, 桓帝時爲南郡太守。先是融有事忤大將軍梁冀旨, 冀諷有司奏融在郡貪濁, 免官, 髡徙朔方。自刺不殊, 得赦還, 複拜議郎。重在東觀著述, 以病去官。)³⁰⁾

여기서 말한 ‘무슨 일’이 馬融 말년을 처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엉뚱하게도 梁冀와 동생 梁不疑 형제의 싸움에 말려들게 된 것인데, 《後漢書》〈梁冀傳〉은 이 형제간의 불화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쪽 참고.

29) 《世說新語》〈文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鄭玄在馬融門下, 三年不得相見, 高足弟子傳授而已。嘗算渾天不合, 諸弟子莫能解。或言玄能者, 融召令算, 一轉便決, 衆咸駭服。及玄業成辭歸, 既而融有〈禮樂皆東〉之歎。恐玄擅名而心忌焉。玄亦疑有迫, 乃坐橋下, 在水上據履。融果轉步逐之, 告左右曰: 〈玄在土下水上而據木, 此必死矣。〉遂罷追, 玄竟以得免。” 이에 대해 馮浩非는 〈馬融追殺鄭玄說質疑〉(《文獻》, 1997年 第3期.)에서 내용 자체가 馬融의 성격이나 情理에 안 맞고 正史 기록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단정 짓고 있으며, 또 魯紅平은 〈世說新語中“馬融追殺鄭玄”說議〉(《青海師範大學學報》, 2009年 第6期.)에서 당시에 선비 사회에서 미움 받은 外戚 馬融과 존경받은 鄭玄을 대비시키고 儒學 倡導와 清談 청산 등을 노린 의도적인 배치로 보았는데 필자의 견해와 거의 부합된다.

30) 위 주와 같음.

梁不疑는 經書를 좋아하고 선비 대접하기를 좋아하였는데, 형 梁冀는 속으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中常侍를 시켜 황제에게 말하여 不疑를 光祿勳으로 전보시키도록 하였다.……不疑는 형제간에 틈이 벌어진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마침내 자리를 양보하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인 梁蒙과 문을 닫고 자중하였다. 梁冀는 동생이 빈객들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자 남몰래 사람을 시켜 變服을 하고 동생 집 앞에 가서 출입하는 자들을 기록하게 하였다. 南郡太守 馬融과 江夏太守 田明이 처음 太守職을 제수 받고 不疑를 찾아뵈는 적이 있는데, 梁冀는 州郡의 관리들에게 암시를 주어 다른 일로써 그들을 음해하였다.(梁不疑好經書, 喜待士, 冀陰疾之, 因中常侍白帝, 轉不疑爲光祿勳,……不疑自恥兄弟有隙, 遂讓位歸第, 與弟蒙閉門自守. 冀不欲令與賓客交通, 陰使人變服至門, 記往來者. 南郡馬融, 江夏太守田明, 初除過謁不疑, 冀諷州郡以它事陷之.)³¹⁾

梁冀는 政敵인 李固와 杜喬 등을 손보는 것으로 朝野를 침묵에 빠뜨린 뒤 다시 내부 단속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기왕 정권을 손에 단단히 쥔 이상 눈 밖에 난 동생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뒤틀린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생을 향한 미움이 엉뚱하게 馬融에게 튀면서 한 때는 자신을 위하여 <大將軍西邸頌>을 지은 馬融에게도 인정사정없는 칼날을 들이대게 된다. 절대 강자에게 보잘 것 없는 전직 太守 하나 손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梁冀는 馬融의 어떤 약점을 잡았는가? 전에 太守로 재직할 당시의 수뢰혐의를 다시 파내서 사람을 시켜 고발하게 만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清代 惠棟은 자신의 《後漢書補注》의注에서 《三輔決錄》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馬融이 南郡太守를 지냈는데, 二府는 融이 郡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主記椽인 歧肅에게 40萬錢을 받았다. 融의 아들 強 또한 관리 白向에게 60萬錢과 布 300匹을 받았다. 肅은 孝廉이었고, 向은 主簿였다.(融爲南郡太守, 二府以融在郡貪濁, 受主記椽歧肅錢四十萬. 融子強又受吏白向錢六十萬, 布三百匹. 以肅爲孝廉, 向爲主簿.)³²⁾

31) 《後漢書》 卷34 <梁統列傳>, 1185쪽 참고.

32) 惠棟, 《後漢書補注》 卷60上 <馬融傳>, 176쪽 참고. 張舜徽主編, 《二十五史三編》(長沙: 岳麓書社, 2001), 第四分冊에 수록.

당시의 관료 사회에서 馬融의 수위는 굳이 변호하자면 요즘도 흔히 둘러대는 ‘당시의 관행’이었지만 일단 고발된 이상 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부패 정도로 본다면 梁冀가 저지른 부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걸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馬融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성립될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 형제의 싸움에 엉뚱한 희생이 된 馬融은 결국 田明과 함께 “머리를 깎이고 태형을 받고 朔方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馬融은 자결하려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田明은 마침내 길에서 죽었다.(髡徙朔方, 自刺不殊, 明遂死於路.)”³³⁾ 이 때 馬融의 나이 이미 74세였는데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아 젊었을 때 호기롭게 ‘삶이 천하보다 귀하다(生貴於天下)’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 東觀에 들어갔고, 두 번 太守를 지냈지만 끝은 처참했다. 결국 권세가에 빌붙어 名利를 쫓았으나 하나도 얻은 것이 없고, 선비의 절개는 이미 무망한 꿈이 되어 버렸고 선비 사회에서 들끓는 악평만 대가로 남았을 뿐이다.

3.5. 馬融의 사망과 范曄의 논평

이렇게 학자로서는 굴곡 많은 생애를 보낸 馬融은 다시 소환되어 京師로 온 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자중하면서 지내다가 88세가 된 延熹 9年(AD166)에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³⁴⁾ 유언으로 간소한 장례(薄葬)를 부탁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그 해, 桃園結義의 막내 張飛가 태어났으며, 5년 전 161년에는 劉備가, 다음해인 162년엔 關羽가 태어난다. 비극의 주인공이 하나 둘 태어나면서 천하는 바야흐로 몇 십 년 되지 않아 들이 닥칠 대 살육의 시대를 예비하고 있었다.

www.kci.go.kr

33) 《後漢書》 卷60上 <馬融傳>, 1972쪽 참고.

34) “年八十八, 延熹九年卒于家. 遺令薄葬.” 위 注와 같음.

馬融의 전기를 쓴 范曄은 馬融의 정치적 행적이나 학문적 업적 보다는 그의 도덕적 결함을 열거하면서 비판적이고도 냉소 락 시선을 그에게 보내는 것으로 평을 시작하고 있다. 范曄의 태도는 그가 처한 당시 사대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보아 馬融이 살던 시기는 물론 훗날에도 그의 이런 처세가 선비 사회에서 매우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論하여 말한다. 馬融이 鄧氏의 명을 사양하고 隴·漢 일대를 떠든 것은 장차 곧은 선비가 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인가? 하지만 얼마 안가 시골 선비의 작은 절개를 부끄럽게 여기고 천금 나가는 몸을 아깝게 여겨 끝내는 사치와 淫樂을 멋대로 즐기면서 派黨에 들러붙어 비난거리가 되었다. 참으로 지성으로 욕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는 드문 법이라. 대저 일이 힘들면 온전히 몸을 아끼려는 마음은 옹어지고, 삶은 귀한 것이라 안전하게 자신을 보존하려는 생각은 깊어진다. 높이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중노동하는 죄수들이고, 처마 끝에도 앉지 않는 자는 천금을 가진 집안 아들이다. 그 대강 원인을 살펴 보건대 편안함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만물을 보는 눈이 다르니 또한 번갈아 서로 웃을 뿐이라.(論曰: 馬融辭命鄧氏, 逡巡隴·漢之間, 將有意於居貞乎? 既而羞曲士之節, 惜不贊之軀, 終以奢樂恣性, 黨附成讖, 固知識能匡欲者鮮矣. 夫事苦, 則矜全之情薄; 生厚, 故安存之慮深. 登高不懼者, 胥靡之人也; 坐不垂堂者, 千金之子也. 原其大略, 歸於所安而已矣. 物我異觀, 亦更相笑也.)³⁵⁾

范曄의 평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색깔이 달라진다. 馬融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대체로 사람이란 자신을 소중하게 보살피기도 하다가, 함부로 포기하듯 다루기도 하는 것은 다 자기가 놓인 형세에 따라 자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각자 처한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내 기준과 다르다고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저 보아 웃어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范曄의 다른 論曰과는 느낌이 다른 이 평은 역사가로써 馬融에게 보내는 일말의 안타까움으로 읽힌다.

35) 《後漢書》 卷60上 <馬融傳>, 1973쪽 참고.

4. 나가는 말

馬融은 賈逵 등과 함께 古文經學의 융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었으나, 적지 않은 일탈 행위와 함께 권세가에 대한 아부 또한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사대부 사회에서는 ‘濁流’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일탈행위는 훗날 淸談家들처럼 名敎의 강압에 항거하는 소극적 저항 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억눌린 자의 분노에서 나온 적극적인 표현도 물론 아니었다. ‘뻗속까지 儒家인’ 阮籍이나 嵇康이 보여준 傍若無人의 경지에 오른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렇게 진정한 古文經學家로 보기엔 너무 가벼운 처신을 일삼았으며, 淸談家로 설명하기엔 더욱 부끄러운 행위가 많았던 그를 古文經學의 大家, 혹은 儒林의 거목으로 부르기에겐 어쩐지 좀 어색한 느낌이 든다. 학문과 수양을 겸해야 진정한 사대부로 대접받던 시절에 馬融은 엄숙한 유가 경전 속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재주가 승하였던 빼어난 才士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보인 일탈 행위들은 겉으로는 훗날 淸談家들의 그것을 방불하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古文經學의 수립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학자이지만, 언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사상 한 구석에는 변형된 형태의 道家思想, 혹은 淸談의 싹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의 사위가 된 袁隗는 장인 馬融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다. “南郡君(馬融)은 학문을 다하여 道가 오묘하였고 문장에서도 辭宗이라 할 만하나 머무는 관직에서 걸핏하면 재물로 손해를 보았다(南郡君學窮道奧, 文爲辭宗, 而所在之職輒以貨財爲損)”³⁶⁾ 馬融의 이런 인생관은 安貧樂道와 ‘천하를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던(以天下爲己任)’ 선비들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通經’ 했지만 ‘明道’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긴 ‘외척’ 馬融을 배척한 것이다.

箕子처럼 고귀한 일생을 바라면서도 功名과 利祿을 잊지 않았고, 治國의 경

36) 《後漢書》 卷84 <列女傳>, 2796쪽 참고.

를 펴고자 하면서도 권세를 두려워하였고, 삶에 통달하여 본성 따라 행동하면서도 문약하고 이기적이었다. 李固처럼 강직하지도, 제자 鄭玄처럼 평생을 학문만을 애써 힘쓰고 名利에 담백하지도 않았다. 더없이 높은 학문을 가지고 一家를 세우지 못하고 외척집단의 암투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헤어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자신이 만든 비극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儒生답지 못한 지식인의 曲學阿世의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필자는 그의 이런 면모가 자신의 經學 저작이 經學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후세에 거의 전해지지 않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馬融은 자신을 어떻게 변호할지는 몰라도 타의에 의해서 당쟁이나 권력 싸움에 말려든 경우가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권력가의 끈을 잡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희생된 사람들과는 달리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칠십이 넘어 당한 욕도 오직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빛나는 학문적 업적을 쌓은 한 經學家의 영광이 순식간에 汚辱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편으로 이쉽기도 하지만 현대의 지식인에게 경계로 삼을 교훈을 던져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 參考文獻 >

- 岡村繁, <郭泰之生涯及其爲人>, 《漢魏六朝의思想和文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魯紅平, <世說新語中“馬融追殺鄭玄”說議>, 《青海師範大學學報》第6期, 2009.
- 劉躍進, <東觀著作의學術活動及其文學影響研究>, 《文學遺產》第2期, 2004.
- 范曄,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82.
-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北京: 中華書局, 1983.
- 王先謙, 《後漢書集解》, 《續修四庫全書·史部·正史類》, 上海古籍出版社, 2002.
- 王瑤, 《中古文學史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 任群英, <通經而無節의東漢大儒馬融>, 《文教資料》第9期, 2009.
- 錢穆, 《國史大綱》上冊, 香港: 商務印書館, 1989.
- 馮浩菲, <馬融追殺鄭玄說質疑>, 《文獻》, 1997年 第3期, 1997.

惠棟, 《後漢書補注》(張舜徽 主編, 《二十五史三編》), 長沙: 岳麓書社, 2001.

졸고, <東漢末 黨錮의禍와 士大夫 정신 그리고 그 한계>, 《中國語文學論集》 34號, 2005. 10.

_____, <郭林宗과 淸談의 시작, 그리고 그의 思想>, 《中國語文學論集》 41號, 2006.12.

_____, <淸議에서 淸談으로>, 《中國語文學論集》 60號, 2010.02.

< 中文提要 >

馬融乃東漢著名經學家。他俊才善文，至於經學，研鑽古文，兼通今文，一生注書著書甚多，然皆已散佚。詣東觀典校秘書，因得罪當權外戚鄧氏，滯於東觀，十年不得升官。至鄧太后死後，外任南郡太守，因忤大將軍梁冀，見誣免官，髡徙朔方。後得赦復官。旋以病辭官，居家盡力於著書教授。初，他雖達生任性，卻堅持氣節，然嗜盡坎坷，不復違忤權門，反誣淸流，終以奢樂恣性，黨附成議。

關鍵詞: 馬融、鄭玄、古文經學、梁冀、淸流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7. 15.	2013. 8. 6.	2013. 8. 20.	2013. 8. 22.	2013. 8. 31.